

『페어리 퀸』(*The Faerie Queene*)의 1권과 6권의 연결점으로 「뮤터빌리티에 대한 두 개의 칸토」(*Two Cantos of Mutabilitie*) 읽기

한 예 립

『페어리 퀸』(*Faerie Queene*, 이하 *FQ*)의 창작 의도 및 방향이 제시된 「롤리 경에게 보내는 편지」(*Letter to Raleigh*, 이하 *LR*)를 보면 에드먼드 스펜서(Edmund Spenser)가 하는 설명과 실제 완성된 *FQ*의 괴리가 보인다. 그 중 가장 눈에 띄게 다른 것은 원래 Spenser는 12권으로 된 작품을 의도했었는데 *FQ*은 여섯 권의 책과 「뮤터빌리티에 대한 두 개의 칸토」(*Two Cantos of Mutabilitie*, 이하 *MC*)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작가가 작품을 쓰다가 초기의 계획을 변경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FQ*을 ‘미완성’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단지 작품을 다 완성하지 못했다고 보기에는 일곱 번째 책의 위치에 들어오는 *MC*의 의미가 작품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열 두 권짜리 프로젝트를 여섯 권과 *MC*의 조합으로 바꾸면서 작품이 물론 형태, 구조 상으로는 처음 계획과 달라지긴 했지만 미상으로는 작가의 처음 의도가 *MC*라는 이색적인 ‘책’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MC*는 앞선 다른 책들과 너무나 다르다. 일단 3개의 곡(*canto*)으로만 이루어 졌을 뿐 더러, 곡 번호도 1이 아닌 6으로 시작하며 마지막 8곡은 단 2개의 연(*stanza*)으로만 구성된다. 번호는 Spenser 자신이 정했다는 설이 유력하다(McCabe 213, 51n). 그렇다면 *MC*의 곡 번호 그 자체도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게다가 앞에서 전개되던 이야기와 서사적으로 연관성을 찾기 힘들고 무엇보다 모든 책에 등장하는 Arthur도 보이지 않는다. *MC*는 너무나 독립적이다. 그런데 *MC*가 가장 나중에 1609년에 첨가된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MC*를 6권을 끝낸 상태에서 1~6권을 모두 포괄하는 작가의 마지막 비평(*commentary*)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식으로 마지막이 제시되는지, 이색적인 마무리를 맺고 있는 이 설정 자체가 작품을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완결된’ 것으로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즉 앞선 6개의 책이 이 공간을 통해 하나로 묶여질 수는 없을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하여 본고에서는 6권의 책들과 *MC*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 그 의미를 모색하여 *FQ*의

전체적 구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MC*의 의미를 파악한 후 이것과 다른 책의 관계를 살필 것이다.

3개의 곡(6, 7, 8)으로 구성된 *MC*의 큰 흐름은 자신이 인간뿐 아니라 천상의 신들(Heavenly Gods) 위까지 군림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뮤터빌리티(Mutabilitie)와 이에 맞서는 조브(Jove)와의 대결 구도 속에서 전개 된다. 이들의 격렬한 논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지속되자 “자연의 신”(God of Nature)을 일종의 판사로 한 재판이 소집된다. 뮤터빌리티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자신의 속성을 근거로 그것이 인간의 세상뿐 아니라 천상계도 지배한다는 논리를 펼친다. 뮤터빌리티는 “그 누가 시간이 모든 것을 집어 삼킨다는 것을 모르는가? / 그러나 시간도 계속 변하고 움직인다”(For, who sees not, that Time on all doth pray?; But Times do change and move continually; VII. vii. 47. 5-6)라면서 먼저 인간 세상이 ‘변화’에 종속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 속에서 뮤터빌리티는 ‘시간’, ‘운동’이 ‘변화’와 동일한 의미 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즉 뮤터빌리티가 말하는 변화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에 따른 운동이다. 이에 조브는 인간 세상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지만 “누가 내게 시간이 그 자체로 움직이고 그 자신의 코스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가?”(Who is it (to me tell) / That Time himselfe doth move and still compel / To keepe his course?; VII. vii. 47. 4-6)라며 시간 자체를 움직이는 힘은 천상계에 있는 신에게 속한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한다. 이에 뮤터빌리티는 천상계에 속한 조브와 같은 신들도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변화하고 따라서 뮤터빌리티의 지배를 받는다고(VII. vii. 49. 9) 주장하며 그 근거로 천체를 이루는 7개의 행성의 ‘변화’를 차례로 언급한다.

그런데 뮤터빌리티의 논리는 조브가 천상계에서 시간을 지배하는 방식, 즉 “[시간]이 그 코스를 유지하는 것”(compel to keepe his[Time’s] course)에 대한 반론으로 적합하지 않다. 뮤터빌리티는 지상의 변화에 대한 기준을 천상계에서의 변화에도 그대로 적용했다는 오류를 범한다. 지상에서 시간에 따른 ‘운동’과 ‘변화’를 같은 선상에 두고 이해했다면, 천상계에서는 이러한 등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상에서의 운동은 ‘변화’라 할 수 있어도, 천상에서의 운동은 일정한 코스를 지킨다는 점에서 ‘질서’가 있는 운동이므로 엄밀한 의미의 ‘변화’로 보기 힘들다. 천상계에서도 운동은 있지만, 그것은 “코스를 유지하는 것”(keep his course)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질서’가 있는 운동이며 이는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 무질서한 변화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맥커비(McCabe)도 뮤터빌리티가 달이 차고, 기우는 변화를 근거로 신티아(Cynthia) 역시 자신의 지배에 놓여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 “신티아의 항상성은 달의 규칙적인 순환에서 연역된다”(Cynthia’s constancy was frequently deduced from the regularity of the lunar

cycle)고 하며 뮤터빌리티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한다(201). 뮤터빌리티는 변화를 시간에 따른 운동과 부동의 문제로, 조브는 질서와 무질서의 문제로 파악한다. 이 둘은 모두 ‘변화’라는 단어를 공유하지만 각각이 의미하는 바는 다르다. 이에 네이처(Nature)는 이 둘이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변화’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논쟁을 종결시킨다.

그런데 왜 하필 네이처가 나오는 것일까? 네이처에 대해 일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신들과 인간의 아버지”(Father of Gods and Men), 즉 달 아래의 세상(sublunar)과, 달 위의 세상, 즉 천체(heaven) 모두 지배하는 신이며 그는 뮤터빌리티의 제안에 의해서 등장하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그는 성별 구분이 불가능한 일종의 양성적 존재(androgyny)이며, 얼굴은 베일에 가려져 인간의 눈(mortal eyes)에 보이지 않고(VII. vii. 5-6), 충분히 나이를 먹었지만 영원히 젊고, 움직이나 움직이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로 그려진다(VII. vii. 13). 하지만 무엇보다 그가 뮤터빌리티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최종 발언을 하기 바로 전에 묘사되는 네이처의 모습에서 그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준다.

말을 끝낸 후, 침묵이 뒤따랐다.
네이처는 그 질문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고
다만 두 눈을 땅에 확고하게 고정했다.
.....
한참 후에 그녀는 명량한 모습으로 위를 올려다보았다.
침묵은 깨졌고, 그녀는 몇 마디를 건넨다.

So hauing ended, silence long ensewed,
Ne Nature to or fro spake for a space,
But with firme eyes affixt, the ground still viewed.
.....
At length, she looking vp with chearefull view,
The silence brake, and gaue her doome in speeches few.
(VII. vii. 57. 1-3, 8-9)

네이처는 침묵 속에서 오랫동안 땅을 주시한 후 위를 쳐다보고 난 후에 말을 하기 시작한다. 네이처의 침묵에 대해 뮤터빌리티의 이야기를 듣고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잠깐 생각을 하는 시간으로 단순하게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해밀턴(Hamilton)이 지적했듯 그가 고개를 들어 위쪽을 쳐다볼 때 그의 “명량한 모습”(chearefull view)가 보인다는 점에서 이전까지 그의 얼굴에 가리워져 있던 베일이 벗겨졌다고 볼 수 있으며(VII. vii. 57. 4n) 그렇다면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 네이처의 침묵은 무얼 의미하며 그 침묵 속에서 땅과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어떻게 이

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침묵 뒤에 하는 이야기들이 무엇이며 그 성격이 어떤지 살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네이처의 최종판결 이야기를 먼저 분석한 후 왜 네이처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아를로 언덕(Arlo Hill)에서의 재판을 주 내용으로 하는 7곡은 14~56연(stanza) 전반에 걸쳐 전개되는 뮤터빌리티의 장광설을 가볍게 무시하듯 단 2개의 연(57, 58 stanza) 내에서 뮤터빌리티의 항변을 제압하고 조브의 원래 자리를 지켜주는 네이처의 모습을 그린다. 네이처의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58. 3-9; 59. 1-3; 59. 4-5)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이야기는 뮤터빌리티적 의미의 ‘변화’, 즉 시간, 운동과 동일한 의미 선상에 놓인 ‘변화’의 의미를 바꾸면서 시작된다.

그들 [모든 것]은 그들의 처음 상태에서 **변화**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의 **변화**를 통해 그들의 존재는 팽창하고
 한참 뒤에 다시 그들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운명이 정한 그들 자신들의 완성을 이룬다.

They [all things] are not *changed* from their first estate;
 But by their *change* their being doe dilate:
 And turning to themselues at length againe,
 Doe worke their owne perfection so by fate:
 (VII. vii. 58. 6-9; 인용자 강조)

이 부분의 핵심은 바로 모든 것들이 변화를 겪긴 하더라도 그들의 “처음 상태”(first estate)에서 변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변화’를 통해 그들의 존재를 “팽창”(dilate)한다는 내용이다. 즉 네이처는 ‘변화’를 “팽창”으로 재정의하고, 변화(dilate)하지만 “처음 상태”(first estate)를 유지하므로 변화가 없다는 모순적인 이야기를 한다. 이런 논리는 앞서 아도니스의 정원(Garden of Adonis, 이하 GA)에 있는 아도니스(Adonis)에 대한 설명과 유사하다.

아도니스는 필멸성에 종속된다
 그러나 뮤터빌리티 안에서 영원하다
 계승을 통해 영속할 수 있고
 변형되고, 다양하게 변화한다.

All be [Adonis] subject to mortalitie
 Yet is eterne in mutability,
 And by succession made perpetuall,
 Transformed oft, and changed diuerslie: (III. vi. 47. 4-7)

아도니스는 필멸에 종속된 인간이긴 하지만 “mutability” 속에서 영원할 수 있다. 따라서 그가 “transformed”되고, “changed”되어 “succession”을 통해 지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앞서 “처음 상태”에서 변하지 않고, 변화를 통해 팽창하여 자신의 완벽을 이룬다는 내용과 상통한다. 여기서 “dilatare”는 존재를 팽창한다는 것, 즉 자손을 통해 종족을 유지시키는 “succession”의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GA를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한다. GA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메커니즘은 크게 3가지 차원에서 이야기 된다. 첫째로 게니우스(Genius)와 GA의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하는 알몸의 아이(naked babe)의 이미지로 그려지는 차원, 두 번째는 실체(substance)와 형상(form)이라는 순수한 추상의 언어로 된 차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너스(Venus)와 아도니스의 이야기로 제시되는 신화적인 차원이다.

GA의 출입을 관장하는 게니우스는 주변에 있는 수 천의 알몸의 아이들에게 “육체의 잡초”(fleshly weeds)를 입혀 이들이 돌아와 “뒷문”(hinder gate)을 통해 GA로 다시 들어올 때까지 “필멸의 상태”(mortal state), 즉 세상으로 내보낸다(III. vi. 32). “게니우스는 인간들이 죽으면 정원으로 돌아오게 하고, 태어나면서 세상으로 내보낸다”(Genius lets human beings at their death into the garden but also at their birth into the world; vi. 32. 8-9n)라는 해밀턴의 주석을 받아들인다면 이 부분은 존재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GA를 나가는 것은 세상에 태어나는 탄생,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은 일회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환한다. “육체의 잡초”를 입고 나간 “알몸의 아이들”은 (세상에서의 죽음 이후에) 다시 GA로 돌아와 그곳에서 “심어지고”(planted)되고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다른 빛깔”(other hew)를 입고 다시 “변화무쌍한 세상”(changeeful world)로 나간다(III. vi. 32-33). 여기서 “알몸의 아이들”을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 편의상 영혼(soul)으로, 그리고 그것이 입는 옷을 육체(flesh, form)로 이해한다면 GA를 드나드는 것은 영혼 자체는 변하지 않고 단지 그 옷만 바뀌는 것이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이미지가 된다. 이는 자연의 순환과도 통한다. GA는 그런 의미에서 변하지 않는 어떠한 영속적인 것이 필멸의 육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갈아 입는 곳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알몸의 아이들과 육체의 잡초의 관계는 GA에 카오스(Chaos)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실체와 형상의 관계를 통해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더 원론적으로 설명된다(III. vi. 36-38). “영원한 카오스”(eternal Chaos)로부터 끊임없이 생성되는 실체들은 형상과 결합하여 몸(body)를 이룬 후 세상으로 나간다(III. vi. 36. 1-2). 앞에서 GA를 드나드는 것은 하나의 영혼이 옷을 계속해서 갈아입는 이미지를 통해 개체의 삶과 죽음의 순환으로 보았다면 카오스에서 실체가 생겨나는 것은 영혼이 계속해서 생성되는 것이

다. 즉 Chaos가 생성해내는 실체는 영혼이며 알몸의 아이들과 같은 선상에서 GA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의미의 한 축을 이룬다. Chaos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실체(naked babe)는 각각 GA를 넘나들며 여러 형상(forme)들(sinful mire, mortal flesh)을 입게 되면서 삶과 죽음의 윤회를 무한히 거듭한다.¹⁾ 여기서 실체가 “자연의 생산적인 후손”(of natures fruitful progenyes)라는 수식어구를 받는 점을 주목한다면(III. vi. 36. 9) 이것이 형상을 만나 몸이 되는 것이 일종의 “fruitful progenyes”로 볼 수 있다. 즉 실체의 생성 자체는 후손 번식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과정이 번식하라는 신의 명령에 의해 움직인다는 점이다. GA가 자연의 순환에 따라 개체들이 죽고, 다시 피어나는 과정을 반복하는 공간으로 그려지는데 이를 총체적으로 주관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to increase and multiply)라는 전능한 주(Almighty Lord)의 명령이다(III. vi. 34). 번식하라는 명령에 의해 자연의 순환이 성격지어지고, 자연의 순환 속에서 실체는 계속해서 새로운 형상들을 입으면서 자손을 번식한다.

그런데 이렇게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전개되었던 이야기들을 비너스와 아도니스가 있는 신화의 세계로 이어지면서 얼핏 마찰이 생기는 것처럼 보인다. 게니우스 일화에서 게니우스는 알몸의 아이들에게 옷 입혀서 GA 바깥으로 보내는데 여기서 ‘바깥’은 “필멸의 상태”(mortal state), “변화무쌍한 세계”(chaungefull world)로 묘사된다(III. vi. 32. 8; 33. 7). 그렇다면 정원의 안쪽은 “chaungefull”하거나 “mortal”하지 않은, 즉 시간을 넘어선 공간처럼 여겨질 수 있다. 또한 세상으로 보내졌던 존재들이 죽음 이후 다시 정원으로 돌아와서 다시 정원에 심겨지는데 이들의 모습이 “마치 이들이 육체적 부패나 필멸의 고통을 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새로워진다”(grow afresh, as they had neuer seene / Fleshly corruption, nor mortall payne”; III. vi. 33. 3-4)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GA는 부패도 없는 불멸의(immortal) 공간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GA에서도 “살아있는 모든 것은 그 법에 종속된다: 모든 것은 시간 속에서 썩고 그들의 죽음으로 간다”(For all that liues, is subject to that law: All things decay in time, and to their end doe draw; III. vi. 40)라는 비너스의 한탄이 들린다. 비너스는 “사악한 시간”(wicked time)에 의해 꽃이 썩는(decay) 것을 보고, 시간에 의해 희생된 다른 생명체들에 대해 한탄한다. GA에서도 “사악한 시간”이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1) 이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무한히 생성되는 Substance들을 A, B, C...로 표현한다면 이들이 각각 입는 옷은 각 A(a1, a2, a3...), B(b1, b2, b3...)... 등이 될 것이다. 여기서 A, B, C는 변하지 않는 substance이고 a1, a2... b1, b2... 등과 같은 것은 이러한 substance들이 입는 다양한 forme의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GA가 인간 세상 안에 있는 비너스의 “지상의 정자”(earthly bower)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곳을 시간을 넘는 어떤 ‘초월적’인 공간으로 보기는 일단 힘들다. 그리고 알몸의 아이들이 다시 들어와서 썩지 않고 성장한다는 구절에서 썩지 않는다는 점 보다 ‘성장’한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GA 안에도 시간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시간이 있어야지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생장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GA에는 분명히 시간이 있고, 이는 생명들의 변화(성장, 부패)를 주관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GA의 밖에서 벌어지는 탄생, 죽음과는 구별된다. 왜냐하면 GA의 시간은 흐르긴 하지만 원운동을 하기 때문이다. GA의 시간은 자연이 순환한다는 의미로 흐른다. 자연의 순환 속에서도 탄생과 죽음이 있다. 하지만 이 때의 탄생과 죽음은 동시에 일어난다. 씨가 땅에 떨어지고 그것이 없어져야(죽음) 꽃이 피어날 수 있다(탄생). 꽃이 없어지고(죽음) 난 후에야 열매(탄생)가 맺어질 수 있다.²⁾

이와 같이 GA에 들어와 있는 시간을 자연의 순환으로 이해한다면 아도니스를 설명하는 “*eterne in mutability, perpetuall by succession*” 구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사악한 시간”이 들어와 있는 공간에서 아도니스가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계승”(succession)에 의해 태어난 그의 형상을 가진 자손들을 통해서이다. “모든 형상의 아버지”(Father of all formes; III. vi. 47. 8)로 일컬어진다는 점에서 아도니스는 일종의 인류의 원형인 아담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의 핵심이 되면서 그가 표상하는 불변의 실체가 종족 번식을 통해 계승된다고 한다면 이 실체는 바로 “*first estate*”에, 종족의 계승(succession)은 “*dilate*”에 각각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언급되는 ‘변화’는 개체(individuals)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종(species)의 영속으로 이어진다고 이해할 수 있다.³⁾ 이는 신이 인간을 처음 만들었던 “처음 상태”, 즉 창조 당시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며 “변성하라”라는 신의 명령을 따라 인간이 신의 창조(create)를 모방하여 자신의 종(species)을 재창조(re-creation)하는 것이다. 뮤터빌리티는 인간이 재창조한 개체들(individuals)을 변화시킬 수 있긴 하지만 그 개체들의 처음 상태, 곧 그들의 종(species) 자체는 신이 창조한 것이므로 변화시키지 못한다. 네이처는 뮤터빌리티의 영역을 “처음 상태”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단지 form의 ‘변화’만 초

2) “Time is in the Garden partly because of the Aristotelian link between generation and corruption. Unless a seed ‘die,’ it cannot bear fruit.” (Nohrnberg 559)

3) 개체를 통한 종의 영속을 Garden of Adonis의 메커니즘으로 보는 견해는 Hankins가 Ficino를 인용하며 설명하는 부분을 참조했다. “Though species in matter seems to undergo changes through certain vicissitudes of the seminal reasons, still it is conserved everywhere as the same species because of the eternal perseverance of ideas in the Divine Mind and of like forms waking in the World-Soul” (Ficino. *Com. In Plotinum*, II. i. 3; p. 1597; Hankins 249에서 재인용)

래한다고 설명한다. 이 때, ‘변화’는 mutability라는 용어를 써서 일반적인 의미의 변화(change)와 구분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이처가 뮤터빌리티의 이야기를 제압하기 위해 처음에는 뮤터빌리티적 의미의 ‘변화’를 재정의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뮤터빌리티 자체에 내재한 모순을 지적한다.

따라서 (카오스)의 딸이여, 더 높이 오르려 하지 말아라
 너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만족해라:
 너의 욕망으로 너의 부패를 찾을 것이기에

Cease therefore daughter further to aspire,
 And thee content thus to be rul'd by me:
 For thy decay thus seekst by thy desire; (VII. vii. 59. 1-3)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구절의 “decay”와 “desire”를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 것이다. 뮤터빌리티는 만물이 변화한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만, 네이처는 모두를 변화시키는 뮤터빌리티의 본성(nature)상, 뮤터빌리티자신도 역시 변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꼬집는다. 이 때 뮤터빌리티의 “desire”은 그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그의 본성(nature)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decay”는 뮤터빌리티 스스로의 본성에 의해 자신도 변화할 수 밖에 없는 모순적인 상황을 가리킨다. 네이처는 뮤터빌리티도 자신의 본성(nature)에 거스를 수 없다는 점에서 네이처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을 짚어낸다.

마지막으로 네이처가 내세우는 논거는 이러한 ‘논리적’ 차원을 넘어 다시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간다. 그런데 이번에는 첫 번째 경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변화’를 이야기 한다.

모든 것들이 변화될 시간이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무도 변화를 볼 수 없을 것이다.

But time shall come that all shall *changed* bee,
 And from thenceforth, none no more change shall see. (VII. vii. 59. 4-5,
 인용자 강조)

“all shall *changed* bee”에서 change는 모든 것에 한 순간에 적용되는 가장 넓은 범위에서의 변화(the Change)이다.⁴⁾ 이 Change는 뮤터빌리티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자

4) 본고에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총체적인 의미의 변화는 ‘거대한 변화’(the Change)로 대

체모순을 짚고 있는 네이처는 그 대상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 행에서 “none no more change shall see”라고 할 때의 변화는 영혼(soul)이 아니라 형상(form)만, 종(species)이 아닌 개체(individuality)의 변화만 초래할 수 있는 변화(mutability)를 의미한다. 인용문에서는 이 거대한 변화로 인해 아무도 mutability, 즉 개체 차원의 변화를 보게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렇다면 이 거대한 Change는 무얼 의미하는가?

이 구절과 성서에서 제시 되는 마지막 부활과의 연관성은 이 구절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으로 자리잡았다.⁵⁾ 하지만 굳이 성서에 기반을 둔 해석의 틀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이 구절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앞서 뮤터빌리티가 의미하는 변화란 시간에 따른 운동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조브는 뮤터빌리티가 시간을 가지고 지상(sublunar)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렇다면 그 거대한 Change로 인한 결과, “none no more change(mutability) shall see”는 다시 말해 아무도 시간을 보게 되지 못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바꾸어 말하자면 거대한 Change가 있고 난 후에는 모든 것들이 시간을 너머선 곳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시간 속에서의 운동이 mutability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라면 ‘거대한 변화’의 골자는 시간이라는 요소를 넘어서선 곳을 보게끔 하는 ‘변화’인 것이다. 네이처는 시간을 넘어서는 어떤 지점(후에 8곡에 이르러 시인에 의해 “영원”(Eternity)이라는 명칭을 부여 받는)을 이야기 하면서 뮤터빌리티의 야망을 진압한다. 네이처가 이야기를 마치고 사라지는 이유도 그가 시간을 넘어서선 ‘영원’의 진실 ‘침묵’의 시간 동안 깨달았고 이를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즉 시간이 존재하고 있는 아들로 언덕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상으로 네이처의 최종 판결이 세 가지 근거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각각 지상(sublunar), 천체(heaven), 그리고 시간을 뛰어넘는 차원(timelessness, Eternity)에 해당된다. 네이처는 지상의 차원에서 모든 것들이 그들의 “처음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고 “dilate”한다는 얘기에서 개체의 번식을 통한 종의 영속성을, 천체의 차원에서 (네이처는 “Father of Gods and Men”이므로) 네이처에 의해 뮤터빌리티 자체의 속성상 지니는 자체 모순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상과 천체를 모두 넘어서선 시간을 초월한 영원을 이야기한다. 네이처의 이야기의 내용은 지상적 차원에서 시작하여 하나씩 높은 차원으로 옮겨간다.

문자로 표기하여일반적인 의미의 변화와 구별한다.

5) “Behold, I shew you a mystery; We shall not all sleep, but *we shall all be change, In a moment, in the twinkling of an eye, at the last trump: for the trumpet shall sound, and the dead shall be raised incorruptible, and we shall be changed.*” (1 Corinthians 15: 51-52, 인용자 강조)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 즉 왜 네이처가 최종 판결자로 나오는지의 문제로 돌아갈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네이처는 판결을 내리기 바로 전 침묵 속에서 땅을 오랫동안 주시한 후 위를 쳐다본다. 판결을 내리는 네이처의 이야기가 지상, 천상, 영원의 단계를 차례로 언급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네이처가 아래를 쳐다보다가 눈을 위로 돌리는 모습은 아래 세계와 위의 세계(영원)를 매개하는 이미지로 읽을 여지가 생긴다. 네이처의 시선 이동과 존재의 위계 속에서 아래와 위를 연결하는 피치노(Ficino)의 영혼(soul)과의 유사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피치노는 『플라토닉 신학』(*Platonic Theology*)에서 “영혼은 존재의 중간 단계이며 그것의 모든 상위와 하위의 단계들을 상위의 단계들을 향한 상승과 하위 단계를 향한 하강을 통해 일자로 연결한다”(The soul is the Intermediate Degree of Being and Connects All the Degrees Superior and Inferior to It into One through Its Ascent towards the Higher Degrees and Its Descent towards the Lower Ones”; 31)라는 명제를 제시하여 Soul이 “higher degree”에 있는 One과 “lower ones”을 매개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5가지로 구분되는 존재의 위계(God, Angel, Soul, Body, Quality)를 다시 God/Angel, soul, 그리고 Body/Quality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천사는 플라톤주의자들이 말하듯 진정으로 존재한다. 즉, 그것은 늘 부동의 상태에 있다; 질은 무언가가 된다, 즉 그것은 때때로 움직인다 . . . 부분적으로는 천사와, 부분적으로는 질과 관련된 중간적 존재가 있다”(Angel as the Platonists say, truly is, that is, it is always at rest; Quality becomes, that is, it sometimes moves . . . there must be a middle term[soul] that is partly related to Angel and partly related to Quality”; 31)라고 한다. 피치노가 말하는 영혼과 네이처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긴 힘들지만 적어도 중간적 존재로서 자신의 위치보다 아래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것을 매개한다는 영혼의 역할 공식은 네이처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덧붙여 네이처의 옷(garment)에 대한 묘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타보(Thabor) 산에서 3명의 성자(Peter, James, John)들이 예수의 변형(transfiguration)을 목도하는 장면과 비교되면서 네이처와 예수가 오버랩 되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VII. vii. 7). 하나님과 인간의 속성 둘 다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그 둘을 이어주는 예수가 네이처와 겹쳐지는 설정은 영원과 지상을 이어주는 중간적 존재로서 네이처를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를 제공한다. 신 플라톤적인 영혼(Soul)이 일자(One)와 그 밑에 있는 지상의 존재들을 연결하듯, 그리고 기독교적 맥락에서 예수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듯, 네이처는 지상과 영원을 연결한다.

네이처의 최종 판결에 의해 뮤터빌리티의 항변은 무화되고, 그 결과 그는 “달 아래로 보내어진다”(put downe; VII. vii. 59. 6). 네이처가 한 일은 뮤터빌리티를 제거하는 것

이 아니라 (제거할 수도 없거니와) 그것의 원래 위치, 즉 달 아래의 세상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다. 7곡 말미에서 네이처가 사라진 다음에 8곡으로 넘어가면서 그 자리는 시인의 목소리로 이어지는데 이 때 시인은 아직도 뮤터빌리티의 횡포로 인한 지상에서의 슬픔과 고통을 토로하게 된다. 2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8곡의 첫 연에는 이처럼 지상에 있는 한 개체로서의 시인의 우울함이 배여 있다. 1연에서의 시인의 시선과 목소리는 지상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 다음 마지막 연에서 시인은 뮤터빌리티를 넘는, 즉 “모든 것이 변화되는”(all shall changed bee) 시간이 온다는 네이처의 이야기를 받아 그 내용을 한 걸음 더 진행시킨다. 블리셋(Blisset)은 7권 8곡에 대해서 8곡의 두 개의 연이 각각 6곡과 7곡의 내용에 대응하는 스펜서의 “회고적 비평”(retrospective commentary)이 담긴 것으로 이해한다(232). 하지만 여기서 시인의 이야기는 네이처의 이야기에서 좀 더 나간다.

나는 네이처가 한 말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변화가 있지 않을 거라는 시간에 대해서.
그러나 모든 것들의 변함없는 안식이
영원의 기둥에 굳건히 있다.
그리고 그것은 뮤터빌리티에 반대된다.

Then gin I thinke on that which Nature sayd,
Of that same time when no more Change shall be,
But stedfast rest of all things firmly stayd
Vpon the pillours of Eternity,
That is contrary to Mutabilitie; (VII. viii. 2. 1-5)

위 인용문에서 원래 “time shall come that all shall changed bee, / And from thenceforth, none no more change shall see”(VII. viii. 59. 4-5)라고 한 Nature의 이야기를 시인은 “stedfast rest of all things firmly stayd / Vpon the Pillars of Eternity”라고 받아들인다. 네이처는 모든 것이 변하는 때가 온다고 하지만 그 때에 대한 구체적 맥락을 주지 않고, 즉 영원(Eternity)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그것의 메커니즘만 피상적으로 설명한다면 시인은 안식(stedfast rest), 영원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개념을 언급하면서 “모든 것이 변화되는 때”에 대한 맥락을 좀 더 부여한다.

여기서의 영원은 보에티우스(Boethius)의 영원에 대한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보에티우스는 움직이지 않는 영원을 인간과 구별되는 신의 고유성으로 이해한다. 그는 “영원은 그렇다면 끝이 없는 생에 대한 총체적이고 완전한 소유이며 이러한 상태는 시간의 세상과 비교해 볼 때 더욱 명확해진다”(Eternity, then, is the total and perfect

possession of life without end, a state which becomes clearer if compared with the world of time)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시간과 영원을 대조한다(Boethius 110). 이때 중요한 것은 영원은 시간을 초월해 있으며 따라서 시간이 없는 부동(immobility)의 상태에서도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원한 현재”(eternal present)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perfect possession of life”는 인간적 시간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한 눈에 포착하는 신의 영원한 현재(eternal present)를 의미한다. 신은 그 자체로 영원한 현재이며 따라서 시간의 흐름 속에 벗어나 있다. 이런 맥락에서 Boethius는 영원한 현재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는 섭리(Providence)를 시간적으로 ‘먼저’ 앞의 일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눈이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의미라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112). 신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인간들이 갖는 시간 개념이 공간적으로 한 곳에 펼쳐져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신은 시간을 넘어 있으며, 인간의 인식으로는 ‘영원한 현재’에 계속 머물러 있는 ‘부동’(immovable)의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영원의 부동성은 변화가 난무하는, 시간의 지배에 놓인 인간 세상의 불안한 운동은 영원의 기동에 “stedfast rest”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시간을 넘어 불안한 운동을 멈추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⁶⁾ 이러한 부동의 영원은 시인의 “모든 것은 영원히 안식할 것이다/안식의 신이라 불리는 그와 함께”(all shall rest eternally / With Him that is the God of Sabbaoth high; VII. viii. 2. 7-8)이라는 구절을 통해 안식의 신(Sabbaoth God)이란 이름을 부여 받는다.

안식의 신은 작가가 안식의 신(Sabbaoth God)에게 만군의 장면(Sabaoth sight)을 기원하며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기도문 “오 위대한 안식의 신이여, 내게 만군의 장면을 허락해 주소서”(O that great Sabbaoth God, graunt me that Sabaoths sight; VII. viii. 2. 9)에서 언급되는 ‘만군’(Sabaoth)과 유사하다. 업튼(Upton)에 의해 처음으로 Sabbaoth는 안식(rest), Sabaoth는 만군(hosts)으로 두 낱말의 의미가 구별될 수 있다고 지적되었는데(VII. viii. 2. 7-9n) 이와 관련된 해석은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 Sabaoth와 Sabbaoth를 단순한 철자의 변주(variation)로 해석하여 별 다른 구분을 두지 않을 수도 있고, 안식의 신이나 만군의 신이나 모두 기독교의 창조주를 일컫는다는 점에서 둘의 차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Sabaoth’란 단어가

6) Hankins는 8곡 2연에서 제시되는 영원(Eternity)과 부동(immobility)의 관계에 대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Aquinas의 글을 인용하면서 든다. “As the Philosopher says in Physics viii, in every motion there is a certain generation and a certain corruption in that the movable object ceases to be in the terminus from which it comes and begins to be in the terminus to which it goes. From this it is clear that all mutability is contrary to eternity. Therefore, eternity includes not only interminability of being, but also immobility.” (Hankins 296에서 재인용)

성서에 직접 등장하는 것은 로마서와 야고보서에서 각각 한번씩 총 두 번뿐 이라는 점에서 Sabaoth가 물론 창조주를 지칭하는 이름 중 하나이긴 하지만 특정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안식의 신과 만군의 신은 존재적으로는 같지만 굳이 다른 이름을 주어 그 의미를 세분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밀턴(Hamilton)에 따르면 Sabaoth는 성서에서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제시된다: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라”(And as Esaias said before, *Except the Lord of Sabaoth had left us a seed, we had been as Sodoma, and been made like unto Gomorrha; Romans 6:29*, 인용자 강조). 주어진 구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만군의 신은 ‘씨앗’을 주어 소돔과 고모라처럼 씨가 없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막는다. 로마서에서 이 구절이 인용되는 맥락을 좀 더 넓혀서 보면 이러한 ‘씨앗’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예정되었다는 맥락에서 쓰임을 알 수 있다. 만군의 주(Lord of Sabaoth)가 나오는 로마서 9장은 바울이 ‘약속’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택’이 된다는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 하는 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어진 이삭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씨’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They which are the children of the flesh, these are not the children of God: but the children of the promise are counted for the seed; Romans 9: 8). 그렇다면 로마서 9장에서 말하는 ‘씨’는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 ‘예정’한 것이다. 이런 씨를 주는 ‘만군의 신’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계보를 약속하는, 곧 하늘에 선택될 자를 예정하는 약속의 신, 혹은 예정의 신이며 만군의 장면(Sabaoth sight)는 예정의 장면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영원한 현재’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영원의 두 속성으로 부동(immobility)와 더불어 씨(seed)를 약속하는 예정의 능력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부동과 예정 모두 ‘영원한 현재’의 속성이다. 여기서 부동의 영원이 Sabaoth God이라면 예정으로서의 영원에는 Sabaoth God이란 별칭을 붙여볼 수 있다. 이 둘은 영원을 이루는 같지만, 또 다른 맥락을 갖는 두 축이다.

앞서 살폈듯 네이처가 지상과 시간을 초월한 위(영원)를 연결한다면 시인은 그의 말을 받아서 그것에 구체적인 ‘영원’이란 맥락을 부여한다. 네이처가 말하는 “모든 것이 변하는 때”란 다름아닌 영원이며, 보에티우스적 ‘영원의 현재’라는 개념을 통해 부동과 예정의 속성을 동시에 갖는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는 각각 안식의 신, 예정의 신이라는 별칭이 부여되어 영원의 두 축을 이룰 수 있음을 살폈다. 안식과 예정은 모두 영원의 현재를 설명하는 개념이 된다. 그렇다면 작가의 마지막 기도, “위대한 안식의 신이여, 만군의 장면을 내게 허락하소서”(O that great Sabaoth God, graunt me that

Sabaoths sight)는 안식의 신에게 예정의 장면을 보여달라는 기원이라 할 수 있다. *FQ*의 국가의 건설이라는 서사시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예정의 장면(Sabaoth sight)은 영국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속한 ‘씨앗’으로 그 계보에 오르길 희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인은 신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써 영국을 계시록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나라, 새 예루살렘(New Jerusalem)의 위치로 승격시키고자 기원하는 것이다. 결국 Sabaoths sight는 새 예루살렘으로서 영국을 위치시키고자 하는 작가의 바람이 투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앞서 작품 1권(Holiness)의 알레고리적 핵심(allegorical core)으로 제시된 바 있다. 교만(Pride)를 대변하는 오르골리오(Orgolio)에게 패배한 후 레드크로스(Redcross) 기사는 우나(Una)를 통해 “성스러움의 집”(House of Holiness)으로 인도된다. 그곳에서 그는 명상(Contemplation)을 통해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성스러움에 대한 일종의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의 결과 레드크로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곧 (그가 말하길) 신의 은총으로
위로 받을 수 없는 저 처녀의 탄원을 해결하고
바로 이곳으로 돌아와
초라한 순례자로서 길을 걷겠다.

Then shall I soone, (quoth he) so God me grace,
Abett that virgins cause disconsolate,
And shortly back returne vnto this place,
To walk this way in Pilgrims poore estate. (I. x. 64)

모험을 마치고 새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걷겠다는 레드크로스의 이야기는 모험을 마치고 궁으로 돌아오는 기사 로맨스의 기본적인 서사가 순례(pilgrimage)로 편입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처음에 레드크로스의 모험은 “용맹한 전투에서 그의 힘을 증명하기 위한”(To proue his puissance in battell braue; I. i. 3), 즉 “세상적인”(earthly things) 목적에 있었다면 “성스러움의 집”에서 교육을 받은 이후 그의 ‘모험’은 새 예루살렘을 향한다. 이처럼 종교적 색채가 짙은 성스러움(Holiness)의 권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소재를 통해 *MC*의 만군의 장면(Sabaoths sight)으로서의 새 예루살렘과 겹친다. 그리고 이 겹치침 속에서 두 책 사이의 연결고리가 형성되며 이를 통해 *MC*가 성스러움(Holiness)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작품 전체가 구성되는 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FQ*의 각 권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했을 때 각 권들이 표방하는 성

스러움-절제-정절-우정-사랑-정의-예의라는 6개의 덕목은 서로 겹쳐지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관계로 제시된다. *FQ*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알레고리가 뚜렷한 성스러움(Holiness)에서 시작하여 예의(Courtesy) 쪽으로 가면서 알레고리가 약해진다는 것이다. 알레고리가 약해지는 것은 뒤로 갈수록 관념적이고 종교적인 색깔이 열어지면서 비교적 현실, 정치적 맥락이 들어옴에 따라 알레고리가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알레고리는 보이지 않는 관념을 일종의 도식으로 그려내는 것이 라면 그러한 알레고리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1, 2권의 성스러움(Holiness)과 절제(Temperance)의 덕목은 각각 레드크로스과 가이언(Guyon)을 통해 비교적 뚜렷하게 제시되었더라면, 3권에 이르러 정절(Chastity)이라는 덕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권의 기사 브리토마트(Britomart)를 비롯하여 아모렛(Amoret), 벨피비(Belpheobe), 플로리멜(Florimell)과 같은 비슷한 급의 여주인공들을 다 같이 살펴야 했다. 4권은 “캄벨과 텔라몬드, 혹은 우정의 전설”(The Legend of Cambel and Telamond, or of FRIENDSHIP)이란 제목을 달고 있지만 Friendship의 기사로 소개되었던 캄벨(Cambel)과 텔라몬드(Telamond 혹은 Triamond)는 작품 앞부분(canto 2, 3)에서만 집중적으로 조명될 뿐이다. 5권에서 제시되는 여러 에피소드들에는 영국 당대의 역사의 층이 진하게 깔린다. 6권의 기사 칼리도어(Calidore)의 궁극적 적인 뻔뻔한 짐승(Blatant Beast)는 칼리도어에게 처음엔 사로잡히지만 나중에 풀려나 세상을 헤집고 다닌다. 이러한 결말은 6권에 이르러서 작품이 얼마나 당대 ‘현실’에 가까워졌는지 보여준다. 더 이상 알레고리로 표방되는 덕목이 이상적인 결말로 귀결되지 않는다. 6권의 결말에 이어 *MC*에서 세상을 혼란케 하는 뮤터빌리티의 등장도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MC*의 처음이 1이 아닌 6곡에서부터 시작된 이유도 뮤터빌리티가 6권의 결말을 이어받는 설정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MC*의 구조를 보면 뮤터빌리티와 그것의 반대인 영원(Eternity)를 이야기하는 네이처의 이야기가 각각 6, 7 canto에 배정됨으로써 뮤터빌리티가 활개를 치는 ‘현실’과 영원이 이를 압도하는 (종교적) ‘관념’이 병치함을 알 수 있다. 6권에서 풀려난 뻔뻔한 짐승에게서 바통을 넘겨 받은 뮤터빌리티의 행로는 ‘현실’ 세계를 그대로 이어받지만 네이처의 짧지만 따끔한 판결을 통해 *MC*의 언어는 종교적인 관념의 색채를 강하게 받으면서 현실로부터 멀어진다. 이러한 구조는 6, 7곡 각각을 시인의 입을 통해 다시 요약, 대변하는 8곡의 1, 2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8곡 1연은 6곡에서 뮤터빌리티가 지배하는 현실을, 8곡 2연은 7권 마지막 두 연에서 제시되는 Nature의 이야기를 다시 반영한다. 그리고 네이처의 이야기는 “O that great Sabbaoth God, graunt me that Sabaoths sight”(viii. 2. 9)라는 시인의 기도를 통해 새 예루살렘이라는 비전을 공유하

는 1권으로 향한다.

*MC*는 1권과 6권을 이어준다. 가장 알레고리가 확실하게 들어와 있는 1권의 성스러움(Holiness)와 알레고리의 힘이 약해지고 그 자리에 현실이 더욱 많이 들어온 6권의 예의(Courtesy)가 연결된다. 이는 마치 지상과 영원을 매개했던 Nature의 역할이 *MC*에도 적용되어 *MC*를 통해 가장 종교적인 하늘의 덕목인 성스러움과 가장 현실적인 예의의 덕목이 연결되는 것 같다. 이렇게 *FQ*은 6개의 책과 *MC*라는 이색적인 작품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MC*를 일종의 연결고리로 이해한다면 *FQ*의 구조가 (물론 스펜서가 7~12권을 쓰진 않았지만) 1-2-3-4-5-6-*MC*-7(1)-8(2)-9(3)-10(4)-11(5)-12(6)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6권에 잠재적으로 대응되는 7~12권을 상정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는 스펜서가 *LR*에서 제시한대로 12권의 책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의미상으로 1권과 6권을 이어주는 *MC*를 통해 *FQ*을 눈에 보이는 6개의 책과 보이지 않는 6개의 책으로 이루어진 ‘완결된’ 작품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Bieman, Elizabeth. *Plato Baptized*. Toronto: U of Toronto P, 1988.
- Boethius. *The Consolation of Philosophy*. Trans. P. G. Wash. Oxford: Oxford UP, 1999.
- Ficino, Marcilio. *The Platonic Theology: Selections. Cambridge Translations of Renaissance Philosophical Texts*. Vol. 1: Moral Philosophy. Ed. Kraye, Jill. Cambridge: Cambridge UP, 1997. 29-36.
- Hankins, John Erskine. *Source and Meaning in Spenser's Allegory*. Oxford: Oxford UP, 1971.
- Lewis, C. S. *The Allegory of Love: A Study in Medieval Tradition*. Oxford: Oxford UP, 1936.
- McCabe, Richard A. *The Pillars of Eternity: Time and Providence in The Faerie Queene*. Dublin: Irish Academic Press, 1989.
- Nohrnberg, James. *The Analogy of The Faerie Queene*. NJ: Princeton UP, 1976.
- Spenser, Edmund. *The Faerie Queene*. Ed. Hamilton, A. C. Longman, 2009.

ABSTRACT

Two Cantos of Mutabilitie as the Link
Between Book One and Book Six
of *The Faerie Queene*

Yehrim Han

This thesis proposes that the structure of Edmund Spenser's *Faerie Queene* (*FQ*) is circular by arguing that *Two Cantos of Mutabilitie* (*MC*), the last part of *FQ*, functions as a link between Book One and Book Six. Unlike the poet's first design to compose *FQ* in twelve Books as specified in his *Letter to Raleigh*, Spenser finishes *FQ* by attaching *MC* after his sixth Book. *MC*, a collection of three cantos as an alternative of the seventh Book, shows heterogeneous qualities compared to the other six Books. Whereas the previous six consist of twelve cantos each, *MC* has only three cantos and it starts with canto number six. Additionally, *MC* apparently has an independent narrative which lacks immediate correlation with the other Books. Through this peculiar modification in *MC*, Spenser might have intended to maintain his first design of *FQ* without having to write six more Books. Based on this assumption, this thesis investigates the function of *MC* in relation to the other six Books and reveals how *MC* replaces the uncomposed yet potential six Books (Book Seven to Book Twelve).

By analyzing how Nature, the central figure in *MC*, subdues Mutabilitie, I find Nature to be analogous with the Neoplatonic, especially Ficinian concept of 'Soul' that mediates the Earthly (body) and the Heavenly (the One). I apply this role as a mediator to *MC* in accounting for its structural function by demonstrating how *MC* mediates Book One and Book Six. Reading Mutabilitie of *MC* as an abstractized figure of Blatant Beast, the antagonist of Book Six, and given that *MC* starts with canto number 'six,' I interpret the beginning of *MC* to be succeeding Book 'Six.' Furthermore, by proving that the "Sabaoths sight" in the last canto of *MC* echoes the vision of New Jerusalem which is the

allegorical core of Book One, I connect the ending of *MC* with Book One. In this way, the narrative of *MC* begins by succeeding Book Six and changes its direction to Book One by the bridge of the New Jerusalem motif, thus forming a circular structure. Since circle symbolizes eternity in Neoplatonism, the circular structure created by Spenser's distinctive formation of *MC* reflects the poet's desire to elevate the history of Elizabethan period to the realm of eternity.

Key Words circular structure, eternity, Neoplatonic soul, Mutabilitie Cantos, New Jerusalem, Sabaoth's Sight